

최고위직이 반드시 외로운 자리가 될 필요는 없다

IT DOES NOT HAVE TO BE LONELY AT THE TOP

By Rick Boxx

많은 CEO, 비즈니스 리더들 또는 전문직 리더들은 “정상은 외롭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사업가나 최고 경영자들은 팀원들과 공유하지 않은 채, 어려운 결정을 혼자 내려야 하는 상황이 종종 놓일 때가 있다. 이런 이유로 1945 년 미국 대통령 해리 S. 트루먼은 자기 책상에 “The Buck Stops Here.”(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올려놓았다. 그는 중요한 정책 결정의 궁극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A common refrain I hear from many CEOs and business and professional leaders is, “It’s lonely at the top.” Business owners and top executives often find themselves having to make difficult decisions they are not comfortable sharing with their team members. This is why in 1945, U.S. President Harry S. Truman had a sign made for his desk that read, “The Buck Stops Here.” He knew that for key decisions the ultimate responsibility was his alone.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동료 집단의 도움을 받거나, 비즈니스 코치 또는 컨설팅 코치를 고용하지 않는 한, 많은 CEO 는 결국 혼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런 방식이 성공으로 이어질 때도 많지만 지혜로운 조언의 부재와 옆에서 책임감 있게 붙들어주는 존재의 부재로 인해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Unless they can find a group of peers they trust and in whom they can confide, or pay for a business coach or consultant, many CEOs often end up making decisions in isolation. Sometimes this can be successful, but it also can lead to poor decision-making due to a lack of wise counsel and accountability.

고린도후서 5:20 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즈니스 시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려면 지혜로운 조언을 구하고, 그런 지혜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필수이다.

In terms of striving to effectively represent Jesus Christ in the marketplace, being “*ambassadors for Christ*” as 2 Corinthians 5:20 states it, seeking and being willing to listen to wise counsel is essential. Christianity was not designed for lone rangers, people who isolate themselves during times of crisis.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 많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다음은 그 중 몇 가지 예이다.

As we might expect, the Bible has much to say about this. Here are some examples:

하나보다는 둘 또는 그 이상이 낫다. 무거운 짐을 혼자 지는 것보다 누군가 함께 들어주거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듯,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무거운 책임을 감당하는 일도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훨씬 쉬울 것이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9-12)

Two or more, better than one. Just as lifting or carrying a heavy load is easier with someone to help rather than trying to carry it alone, decision-making and managing heavy responsibilities can be easier when we can share them. *“Two are better than one, because they have a good return for their work. If one falls down, his friend can help him up. But pity the man who falls and has no one to help him up! Though one may be overpowered, two can defend themselves. A cord of three strands is not quickly broken”* (Ecclesiastes 4:9-12).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다. 경영자로서 느끼는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일 수 있다. 하지만 비밀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혹은 비즈니스 조직을 이끌 때 느끼는 부담과 압박을 잘 이해하는 소규모 동료 그룹이 있다면, 이는 매우 소중한 것일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지지를 동원해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10:24)

Being with others can dispel loneliness. Feelings of loneliness in the executive suite sometimes are inevitable. However, having someone to meet with in confidence, perhaps a small group of peers who understand the pressures of leading a business or organization, can be invaluable and a source of much-needed support. The Bible admonishes us to, *“Let us consider how we may spur one another on toward love and good deeds, not giving up meeting together, as some are in the habit of doing, but encouraging one another”* (Hebrews 10:24).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찾아보라. CBMC 는 직장에서 많은 경영자들이 수년 동안 매일 겪는 “정상은 외롭다”라는 딜레마를 극복하게 하려고, 유사한 배경과 관심사를 가진 동료 그룹을 만들어왔다. 이런 유익한 동료 관계 형성을 위해 탄생한 대표적인 그룹이 Connect 3 팀, Young Professional 팀, Trusted Advisor Forum 팀과 같은 것들이다.

Seek out like-minded individuals. For many years CBMC has been intentional to establish peer affinity groups to assist people in overcoming the “lonely at the top” dilemma that many in the workplace face every day. Connect3 teams, Young Professionals and Trusted Advisor Forums are among the groups available for building beneficial peer relationships.

이러한 모습은 성경에도 자주 보인다.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어갈 영적 지도자들이 필요했다. 사도바울과 그의 영적인 멘토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들은 함께 이 중요한 사역을 섬기게끔 임명되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사도행전 13:2-5)

We find this practice often implemented in the Scriptures. When the early Church was growing rapidly, mature spiritual leaders were needed to ensure this growth was consistent with what Jesus had taught. Some leaders like the apostle Paul and his mentor, Barnabas, were appointed to work together in this important ministry.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They] went down to Seleucia and sailed from there to Cyprus...[where] they proclaimed the word of God in the Jewish synagogues. John was with them as their helper" (Acts 13:2-5).

당신이 CEO 이든 비즈니스 리더이든 서로 마음이 맞는 리더들로 이루어진 모임에 참여하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Whether you're a CEO or a business leader, being involved in a group of like-minded leaders can help overcome loneliness and making poor decisions.

묵상과 토론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정상은 외롭다"라는 경험을 전에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당신은 현재 그런 경험을 하고 있나요? 그 경험은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나요? 그것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Have you ever had the "it's lonely at the top" experience? Perhaps you are experiencing it right now. Describe what that is like for you.

2. 아무와도 의사결정을 등, 리더십의 무게를 나누지 않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What are some of the pitfalls of refusing to align with one or more people with whom you can share the burdens of leadership, including making difficult decisions?

3. 누군가와 짐을 나누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물건과 같은 짐이었든, 또는 마음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었던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경험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였나요? 또 어떻게 느꼈나요?

Think of a time when you were able to share a burden with someone else, whether carrying a physical load or being able to openly share about challenges you were facing. What was that like for you?

4. 당신의 의견에 무조건 동의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면서도, 당신이 신뢰할 수 있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뜻이 맞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How can you find like-minded individuals in whom you can confide, without selecting people you know will simply agree with whatever you want to do?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구절을 참고하세요.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잠언 27:17; 마태복음 18:19-20; 고린도전서 12:12-14; 데살로니가전서 5:11; 갈라디아서 6:2

Proverbs 27:7; Matthew 18:19-20; 1 Corinthians 12:12-14; 1 Thessalonians 5:11; Galatians 6:2

- (잠언 27: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 (마태복음 18:19-20)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 (고린도전서 12:12-14)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시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 (데살로니가전서 5:11)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 (갈라디아서 6:2)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번 주 도전

Challenge for This Week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CEO 이든, 사업가이든, 중간 관리자이든, 또는 팀의 일원이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믿고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사람 또는 소그룹이 있다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Regardless of your level of responsibility, whether you are a CEO or business owner, a lower-level executive or manager, or member of a team, you must make important decisions. Having someone – or a small group – in whom you can talk in confidence can help to ensure those decisions are the best ones.

아직 동료 그룹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런 모임을 어떻게 만들지, 또는 어떻게 이미 기존에 형성된 모임에 참여할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세요. CBMC 에 속해 있다면, 이런 필요를 채우기 위한 자원이 있는지 또는 이런 종류의 모임이 있는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If you are not already in a peer group at present, pray about how you might form one or become part of one that has already been established. If you are involved with CBMC, ask about resources it has available for meeting this need.

※출처: CBMC INTERNATIONAL

※번역 및 편자: 서진희 <기독교전문 서적 번역가, 제 21 회 한국기독교 출판문화상 수상작 번역, 영어프렌드 미국원어민 온라인 어학원 대표>